

Policy Brief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작성 : 김흥식 / 문화관광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hkim@gri.kr, 031-250-3243)
- 감수 : 이수진 / 문화관광연구센터 연구위원
(sjlee@gri.kr, 031-250-3174)

목 차

요 약

- I.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추진현황
- II.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소요예산 추정
- III.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IV. 요약 및 정책건의

- Policy Brief는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Brief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요 약

- 전국체육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선수단 3만 명이 참가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임. 본 연구는 2011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전이 타 지역에서 개최되던 전국체전과 차별화하는 방안과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경기장의 신축과 개보수에 소요될 직접투자비용은 총 1,738억 원(대회운영비 제외)으로 추정되고, 전국체전에 참가할 선수단과 선수단 가족·참관객 등은 약 1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문객들이 경기도지역에서 지출할 소비액은 약 478억 원으로 추정됨.
- 경기도의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두 가지 경로(건설투자비용 및 관광소비지출)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먼저 건설투자비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24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71억 원, 수입유발효과 232억 원, 고용유발효과 8,512명, 세수유발효과 255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관광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2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84억 원, 수입유발효과 101억 원, 고용유발효과 2,051명, 세수유발효과 61억 원으로 각각 추정됨.

-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특히 서비스 관련 관광산업(음식점 및 숙박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 등)과 쇼핑관련 관광산업(음식료품·섬유 및 가죽·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체전 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장 건설투자에 대한 세분화된 지출항목과 방문객의 소비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 기초 통계자료(time-series raw data)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국 각지로부터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이 경기도를 찾으므로, 대회 단계별, 즉 대회 개최 전, 대회 개최기간, 대회 개최 후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국체전 개최기간 동안 외지방문객과 지역 내 방문객을 세분화함으로써 문화·생태·평화·레저·역사·의료·수변 등 다양한 자원의 테마별·단계별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Master Plan 수립과 전국체전과 연계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시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I.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추진현황

□ 대회개요 및 추진상황

-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경기도내 일원 18개 시·군 경기장 (주 개최지 : 고양시)에서 44개 종목(정식 41개 ; 시범 3개)에 참가인원 28,000여명(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포함)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하여 2011년 10월 중 7일간으로 개최될 예정임.
-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3월에 체전기획단 발족(10명)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2010년 5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대회 상징물 선정 및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임. 또한, 종목별 경기장 배정 및 신설, 개·보수를 약 1년간에 걸쳐 인프라를 확충 및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 대회 추진방향 및 전략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거양 및 경제적 파급효과 집중 홍보 필요함.
 - 경기장 등 체전 시설물은 기존 종목별 전용경기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통한 재정비용의 절감이 필요함.
 - 구조물 위주의 홍보물 제작을 탈피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임(스마트 폰 연계 등).
 - 도내 거주 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섭외·위촉하여 활용할 예정임.
- 도민이 참여하는 성화 봉송 및 개·폐회식 준비 필요

- 31개 전 시·군이 성화 봉송에 직접 참여하는 대회분위기 조성
- 경기도의 비전, 문화예술 공연 등 도 위상에 걸 맞는 개·폐회식 준비(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출아이디어 공모, 연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기획사 선정 추진 등)
-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문화축제로 격상
 -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고양국제야외(조각)축제, 각종 이벤트, 우수 농·특산품 판매행사 등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전국체전을 문화축제로 격상시킴.
- 도민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등 지역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호응도 향상에 기여함.

□ 대회 준비계획

- 각급 기관 및 단체 공조 추진체계 구축
 - 도,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고양시, 시·군, 직능·시민단체 등으로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집행위원회 구성(1실, 18부 78팀)과 시·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2010년 12월 중에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회 개최하도록 함.
- 분위기 조성 및 손님맞이
 - 각종 축제와 연계하고 상설 이벤트 광장 및 시·도 홍보관 운영과 특산물을 전시·판매함.

- 각급 기관 및 단체 공조 추진체계 구축
 - 주요 인사 초청 및 의전 : VIP, 정부 및 체육회 인사, 국제 자매도시 대표 등을 초청하여 공조체계를 구축함.
 - 외지로부터 방문하는 참가선수단과 가족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숙박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개선 및 시가지지를 정비함.
- 경기장 신설 및 보수
 - 2011년 8월까지 신축 4개소, 개·보수 34개소 등 총 38개소 경기장의 신설 및 보수공사 완료로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도모함.
- 경기종목
 -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41개와 시범종목 3개로 총 44개 종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분산·개최할 예정임.
 - 정식종목은 축구·야구 등 단체종목 9개와 육상·수영 등 기록종목 11개, 레슬링·복싱 등 체급종목 7개, 펜싱·검도 등 개인단체 14개 종목을 각각 포함하고 있고, 시범종목은 럭비, 사이클(도로, MTB) 등 3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음.
- 홍보 및 사후관리
 - 주관방송사 선정(KBS), 프레스센터 설치, 홈페이지 구축, 홍보 도우미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매체홍보와 대회 개최 이후 평가보고회 개최, 백서 및 사진첩 발간, 유공자 포상 등 사후관리 방안 계획 마련함.

〈표 1〉 경기종목 및 개최장소

시·군	종목	종별	경기장	시·군	종목	종별	경기장
고양	개폐회식	-	고양시 종합운동장, 도로	안산	배구	남 고	올림픽기념체육관
	육 상	전종별	고양시 종합운동장, 도로			남일/남대	감골 체육관
	수 영	전종별	고양시 종합실내체육관			여일/여고	안산여자정보 고등학교
	축 구	여고부	어울림축구장		양 궁	전종별	와 스타디움
		남고부	중산축구장		궁 도	전종별	궁도 전용경기장
		여일부	대화축구장	사이클	전종별	벨로드롬경기장	
	테 니 스	전종별	휠릭스테니스장(33면)	의 정 부	우 슈	전종별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전종별	성사시립테니스장(9면)		복 싱	고등부	의정부공고 체육관
		전종별	토당시립테니스장(6면)			대학/일반	경민대학교 체육관
	역 도	전종별	역도전용경기장	용인	유 도	전종별	용인대학교 유도장
	체 조	기계체조	고양시 종합실내체육관		태권도	전종별	용인시 실내체육관
	보디빌딩	전종별	덕양 어울림누리 대극장		조 정	전종별	신갈저수지
	세팍 타크로	전종별	덕양체육관	안양	인라인 롤러	전종별	인라인롤러 전용경기장
		골 프	전종별		한양 C.C	볼 링	전종별
스쿼시		전종별	고양시 종합실내체육관		사 격	전종별	경기도종합사격장
야 구		고등부	고양시 야구장	화성	펜 싱	전종별	발안농고 펜싱 전용경기장
		남일부	수원월드컵경기장		요 트	전종별	경기요트경기장 (전곡)
수원	야 구	일반부	수원시 야구장	과천	승 마	전종별	승마장
	농 구	고등부	아주대 체육관		근대5종	전종별	승마장
		일반부	성균관대 체육관	시흥	검 도	전종별	경기도 검도회관
	근대5종	근대4종	경기체고 경기장	김포	축 구	남고부	김포시 종합운동장
	배드민턴	전종별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체 조	리듬체조, 에어로빅	김포시 실내체육관
	씨 림	전종별	수원시 체육관	하남	카 누	전종별	카누전용경기장
부천	수 중	전종별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이천	철인3종	전종별	설봉공원
	핸 드 볼	전종별	부천시 실내체육관	안성	정 구	전종별	정구전용경기장
	레 슬 링	전종별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평택	하 키	여자부	합정 레포츠공원내 경기장
	탁 구	전종별	송내체육관	양평	소프트볼	전종별	강상체육공원
성남	하 키	남자부	성남 하키경기장				
	볼 링	전종별	탄천스포츠펠터(36레인)				
			AMF 볼링센터(24레인)	합계	41종목		54경기장

II.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소요예산 추정

-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총 소요예산은 1,975억 원(국비 244억 원, 도비 405억 원, 시·군비 1,211억 원)인 것으로 추정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투자액은 1,260억 원(63.8%)으로 나타났고,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13억 원, 2009년 532억 원, 2010년 515억 원이 각각 기 투자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총 715억 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어 4년간에 걸쳐서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투입될 총 소요예산은 1,975억 원인 것으로 추정됨.

〈표 2〉 연도별 소요예산(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국	도	시·군	
계	1,975	213	532	515	715	179	259	277	
대회운영비	237	-	-	2	235	35	125	75	
시설비	소 계	1,738	213	532	513	480	144	134	202
	신 설	1,352	213	475	457	207	35	41	131
	개보수	386	-	57	56	273	109	93	71

주 : '08~10년까지 기투자액은 1,260억 원임. 2011도비 투자추정액 중 대회운영비는 경남, 대전 사례를 감안한 것임.

- 그 중에서 대회운영비는 32.9%로 총 235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125억 원, 시·군비 75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설비는 총 480억 원으로 전체 소요예산의 67.1%이 각각 책정되어 있음.

- 전국체전 총 소요예산 중 대회운영비로는 237억 원(12%), 인프라 시설 및 개·보수비용인 시설비는 전체의 88%인 1,738억 원(신설비용 1,352억 원, 개·보수비용 386억 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추정됨.
- 재원별로는 국비 244억 원(12.3%), 기금 35억 원(1.8%), 특교 80억 원(4.0%), 도비 405억 원(20.5%), 시·군비 1,211억 원(61.3%)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어, 시·군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도비와 국비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광특	기금	특교	도비	시·군비
계	1,975	244	0	35	80	405	1,211
대회운영비	237	-	-	35	-	127	75
시설비	소 계	1,738	244	-	-	80	1,136
	신 설	1,352	158	-	-	165	1,029
	개보수	386	86	-	-	80	107

- 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대전시의 경우 소요예산이 총 1,052억 원,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경남의 경우는 소요예산이 총 2,436억 원, 2011년 제92회 개최지인 경기도의 총 소요예산은 1,975억 원인 것으로 각각 추정됨.
- 경기도의 경우 총 소요예산 중에서 대회운영비는 타 시·도보다 다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경남에 비해서는 경기장의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요예산을 운용할 계획임.
 -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기도의 대회운영비는 237억 원으로 총 소요예산 1,975억 원에서 12.0% 비중을 차지함. 대전의 대회운영비 소요예산 164억 원(15.6%), 경남의 대회운영비 소요예산 233억 원(9.6%)보다 많음.

〈표 4〉 타 시·도와의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경기(2011, 제92회)				경남(2010, 제91회)				대전(2009, 제90회)			
계		1,975				2,436				1,052			
대회운영비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237	35	127	75	233	35	124	74	164	35	129	-
경기장 보수	소계	1,738	324	278	1,136	2,203	341	262	1,600	888	-	-	-
	신 설	1,352	158	165	1,029	1,981	271	224	1,480	337	-	-	-
	개보수	386	166	113	107	222	63	38	121	551	-	-	-

주 : 대전은 경기장 보수 관련 신설/개보수 자원별 예산 구분이 어려워 미기재.

- 또한 전국체전을 개최할 인프라의 확충비용으로는 경기도의 경우는 총 1,738억 원(신설 1,352억 원, 개·보수 38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기존시설의 이용 비율은 22.2%를 차지함. 경남의 경우, 경기장 신설비중이 89.9%(기존시설 이용비율 10.1%)로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점을 보임.

Ⅲ.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의 의의

□ 분석개요

- 개발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직·간접으로 투자된 시설 및 인프라 건축 등 건설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계산하였고, 체전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는 전국체전 개최 시 방문객들의 지출액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유발, 소득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및 조세유발효과를 각각 계산함.

□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의의

- 본 분석에서는 경기장 건설 및 운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 제시하고 있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한 단일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음.
 - 단일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의 핵심이 되는 지역투입계수 추정은 선행연구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입지상계수법을 활용, 지역의 부가가치부문을 조정함.
- 파급효과 분석 시 사용한 수도권의 산업연관모형은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상의 국산투입계수표를 수도권의 입지상계수로 조정하여 추정하며,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함.

- 전국체전 경기장 건설투자 및 운영이 대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국체전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의 지출액에 의한 파급효과의 분석을 실시함.
 - 이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조세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치로서 제시함.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전제

- 본 분석에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투자와 체전 개최 시 방문객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지출액의 파급효과분석을 위해 건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파급효과를 추정함.

1) 경기장 건설투자비 추정

-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의 신설과 개보수비용으로 경기도에서 투입될 총 소요예산은 1,738억 원(대회운영비 237억 원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발생하는 투자비 1,738억 원을 기초로 경기장 건설투자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분석’의 관광산업승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2) 전국체전 방문객(선수단 + 관람객) 소비지출액 추정

□ 전국체전 참가선수에 의한 총 소비지출액

-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는 41개 종목에 약 3만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방문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방문객수에 1인당 1일 평균지출액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방문객 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분석’의 관광산업승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 전국체전 방문객 1인당 평균지출액은 ‘2006-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의 내국인 여행비용을 여행일수로 나누어 1일 1인당 지출비용을 산출하여 최근 3년간(2006-2008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목표연도 소비지출액을 추정함.
 - 추정결과, 전국체전 방문객 1인당 평균지출액은 2008년 41,530원, 2010년 44,722원, 목표연도인 2011년에는 46,440원에 이를 것으로 각각 추정함.
- 따라서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선수단에 의한 총 소비지출액은 97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은 평균 7일간 경기도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평균지출액에 체재기간을 곱하고, 이 결과를 다시 총 참가선수단수(3만 명)로 곱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에 참가선수단에 의한 총 소비지출액을 구할 수 있음.

□ 전국체전 참가선수가족 및 관람객 총 소비지출액

-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 선수단 이외에 전국체전 기간 중에는 선수단 가족들과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방문하게 됨.
- 기존의 사례를 참고로 할 때, 선수단 가족과 관람객들은 평균적으로 선수단 규모에 비해 2-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2배, 울산광역시 2배, 대전광역시 3배 등).
 - 경기도의 경우, 정식종목 41개와 시범종목 3개 등 44개 종목에 63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규모의 약 3배 정도의 선수단 및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즉, 참가선수단 규모 3만 명의 약 3배인 9만 명이 경기도의 전국체전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함.
 - 전국체전에 참관하는 방문객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참가선수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선수단 가족 및 전국체전 관람객에 의한 총 소비지출액은 약 3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이를 종합하면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에 참가할 선수단, 선수가족 및 관람객이 전국체전이 개최될 경기도 지역에서 지출하게 될 총 소비지출액은 477억 7천5백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경기장 건설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투자된 건설투자비용은 총 1,738억 원으로 이를 최종수요부문에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총생산유발효과는 4,247억 원으로 추정되어 생산유발계수는 2.4435로 나타났음.

〈표 4〉 전국체전 경기장 건설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고용유발	세수유발
1. 농림수산물	21.93	10.72	4.58	170	0.28
2. 광산물	20.39	8.07	15.32	26	0.19
3. 음식료품	105.06	50.73	6.34	91	24.41
4. 섬유 및 가죽	33.20	14.74	5.24	75	0.77
5. 목재 및 종이	104.69	45.79	25.05	105	1.84
6. 인쇄 및 출판	55.31	30.17	1.02	110	0.92
7. 석유 및 석탄	5.92	2.97	1.53	1	1.95
8. 화학제품	121.94	57.87	30.24	97	2.17
9. 비금속광물	137.36	53.41	8.12	161	0.91
10. 제1차금속	135.01	53.17	31.10	55	0.81
11. 금속제품	72.57	29.01	2.96	104	1.24
12. 일반기계	56.68	24.11	15.07	68	3.31
13. 전기 및 전자	124.17	52.53	27.71	122	3.54
14. 정밀기기	6.63	3.35	2.80	10	0.48
15. 수송장비	23.81	12.15	2.71	19	2.10
16. 기타제조업	20.13	10.19	3.19	46	0.81
17. 전력가스수도	76.15	40.47	0.05	36	0.88
18. 건설업	699.24	268.70	0.09	1,161	29.55
19. 도소매업	115.37	61.81	0.58	617	2.62
20. 음식점 및 숙박업	44.51	21.55	3.79	826	1.91
21. 운수 및 보관업	134.75	68.67	12.07	303	2.94
22. 통신 및 방송	142.51	104.78	2.76	172	8.41
23. 금융 및 보관업	203.80	127.60	1.13	544	2.89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09.96	801.13	14.38	1,283	130.16
25. 공공행정	0.00	0.00	0.00	0	0.00
26. 교육 및 보건	41.17	19.61	4.01	116	0.14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384.53	225.48	5.88	2,196	17.78
28. 기타	150.18	72.69	4.89	0	12.39
총 계	4,247.00	2,271.49	232.65	8,512	255.41

-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총생산유발효과 중에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210억 원(28.5%)으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699억 원(16.5%), 금융 및 보험업과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이 각각 204억 원, 384억 원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유발효과

-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투자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271.49억 원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306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으로 801억 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36.3%의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69억 원, 225억 원으로 각각 나타나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생산유발효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수입유발효과

-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투자에 의한 수입유발효과, 즉 해외로 누출되는 부문으로 총 수입유발효과는 232억 원으로 추정되어 수입유발계수는 0.1326인 것으로 나타남.
- 2차 산업 중에서도 1차 금속제품이 31억 원으로 수입유발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화학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가 각각 30억 원, 28억 원의 순으로 나타남.

- 도소매 및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0.6억 원과 1억 원 등으로 1% 미만의 비중을 나타내어 제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유발효과가 미미함.
- 전력·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의 수입유발효과는 1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조성결과로 야기되는 수입유발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추정됨.
-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에 의한 직접투자 수요의 증가가 대부분 국내의 재화와 서비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부유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고용유발효과

-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조성에 따른 직접투자수요에 의한 총 고용유발효과는 8,512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과 음식점 및 숙박업 부문 등의 총 고용유발효과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50.6%(4,307명)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13.6%(1,158명), 도소매업 7.3%(621명), 금융 및 보험업 6.4%(545명), 운수 및 보관업 3.6%(306명) 등의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총 고용유발효과의 약 2.0%를 차지하는 17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세수유발효과

-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직접투자자금에 의한 총 조세(순간접세)유발효과는 약 255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그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이 전체 조세유발효과의 약 51.2%를 점유하는 131억 원으로 나타나 가장 세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됨.
-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으로 11.6%(30억 원), 음식료품 9.6%(24억 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7.0%(18억 원) 등의 순으로 순간접세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됨.

2)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 생산유발효과

- 전국체전 선수단 및 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액 477억7천5백만 원에 의한 총생산유발효과는 약 829억 원인 것으로 추정됨.
 - 총 소비지출액에 의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828.66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장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144억 원)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91억 원), 도소매업(75억 원), 전기 및 전자기(74억 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7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쇼핑관련 제조업부문과 서비스관련 관광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부가가치유발효과

- 전국체전 선수단 및 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액 477억7천5백만 원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684억 원인 것으로 추정됨.

〈표 5〉 전국체전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고용유발	세수유발
1. 농림수산물	32.80	29.95	4.78	25	1.35
2. 광산품	1.01	0.94	0.81	0	0.04
3. 음식료품	90.87	73.64	10.00	76	13.92
4. 섬유 및 가죽	38.95	26.22	5.76	76	1.68
5. 목재 및 종이	9.91	6.13	2.13	13	0.33
6. 인쇄 및 출판	5.97	4.82	0.33	13	0.29
7. 석유 및 석탄	14.92	6.54	3.37	0	3.00
8. 화학제품	26.74	17.70	5.03	25	1.15
9. 비금속광물	4.77	3.91	0.37	0	0.19
10. 제1차금속	8.96	5.46	1.87	0	0.27
11. 금속제품	4.67	3.46	0.29	0	0.18
12. 일반기계	3.59	2.58	1.37	0	0.28
13. 전기 및 전자	73.90	48.22	15.60	76	3.38
14. 정밀기기	0.75	0.58	0.43	0	0.06
15. 수송장비	3.76	2.71	0.43	0	0.47
16. 기타제조업	3.70	2.73	0.54	13	0.21
17. 전력가스수도	15.19	11.47	0.03	13	0.63
18. 건설업	6.15	5.23	0.01	13	0.49
19. 도소매업	75.33	70.69	0.43	139	0.05
20. 음식점 및 숙박업	143.74	130.00	35.32	1,127	11.89
21. 운수 및 보관업	52.99	38.74	5.16	89	2.82
22. 통신 및 방송	20.20	18.89	0.70	25	1.40
23. 금융 및 보관업	33.41	31.91	0.32	89	1.18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0.57	67.16	2.81	51	9.01
25. 공공행정	0.00	0.00	0.00	0	0.00
26. 교육 및 보건	6.33	5.86	0.25	13	0.1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59.33	53.93	2.65	177	4.84
28. 기타	20.11	14.24	0.76	0	1.61
총 계	828.66	683.67	101.54	2,051	60.89

- 산업부문별로는 음식점 및 숙박업(130억 원), 음식료품(74억 원), 도
소매업(71억 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67억 원) 등 4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차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쇼핑과 관련된 관광산업인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26억 원), 전기 및 전자기기(48억 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타 제조업의 부가가치유
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수입유발효과

- 전국체전 선수단 및 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액 477억7천5백만 원에
의한 총 수입유발효과는 약 101억 원인 것으로 추정됨.
 -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방문객의 수요가 고급화·다양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의 수입유발효과(35억 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16억 원), 음식료품(10억 원), 섬유
및 가죽제품(6억 원), 운수 및 보관업(5억 원), 화학제품(5억 원), 농
림수산물(5억 원) 등의 순의 결과를 보임.

□ 고용유발효과

- 전국체전 선수단 및 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액 477억7천5백만 원에
의한 총 고용유발효과는 2,051명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으로 전체 고용유발
효과의 약 54.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177명), 도소매업(139명), 운수 및 보관업과 금융 및 보험업(89명)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1차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는 전국체전에 참가한 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액에 의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의 경우가 서비스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됨.

□ 세수유발효과

- 전국체전 선수단 및 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액 477억7천5백만 원에 의한 총 세수유발효과는 약 61억 원인 것으로 추정됨.
 - 산업부문별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72억 원)이 가장 높은 세수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37억 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28억 원)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3개 산업의 세수유발효과는 총 세수유발효과의 약 8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의 세수유발효과는 음식료품(14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 및 숙박업(12억 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9억 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5억 원) 등의 순으로 추정됨.
 - 1억 원 미만의 세수유발효과를 가진 산업으로는 광산품(4백만 원), 목재 및 종이(0.33억 원), 인쇄 및 출판(0.29억 원), 비금속광물(0.19억 원) 등 쇼핑관련 관광산업과 관련이 적은 제조업의 대부분이 포함됨.

IV. 요약 및 정책건의

- 경기도에서 2011년 개최될 전국체육대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대회개최로 인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것이라고 판단됨.
- 경기도 지역주민에게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생활체육 및 레저에 대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국체전 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총생산유발효과는 5,07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55억 원, 수입유발효과 333억 원, 고용유발효과 10,563명, 세수유발효과 316억 원인 것으로 각각 추정되어 경기도 전국체전 개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는 전국체전 개최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분석결과를 도출했지만, 경기장 건설투자에 대한 세분화된 지출항목과 방문객의 소비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 기초통계자료(time-series raw data)의 미비로 인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음.
- 향후 보다 정교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기초조사와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국 각지로부터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이 경기도를 찾으므로, 대회 개최 전 투어, 대회 개최기간 중 투어, 대회 개최 후 투어 등 대회 단계별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전국체전 개최기간 동안 외지방문객과 지역 내 방문객을 위한 테마별·단계별·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운영으로 방문객의 지출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전국체전과 연계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이미지 홍보 및 지역의 차별적이고 특색 있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도 시급함.